

가톨릭 마산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2024년 10월 20일
제2640호



복음 빛, 성녀 잔다르크 성당, 니스, 프랑스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이사 2,1-5

화 답 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 2 독 서 로마 10,9-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마태 28,16-20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시몬 시몬 신부
거제본당 주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전교주일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도록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오늘 미사 중에 드리는 본기도는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로 미사 전례에 모여든 우리의 청원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전교주일의 초대와 본기도의 청원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일깨워줍니다. 그 부르심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기도가 십자 성호입니다.

십자 성호는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스스로에게 그음으로서,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인임을 새기고, 삶으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십자 성호를 긋는 우리의 모습은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의 일상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 성호는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를 그음으로서 받은 세례를 기억하게 해주고,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으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이루게 해줍니다. 십자 성호를 긋는 나의 삶은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하루와 기도와 활동을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시작하고 마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웃과 세상에 하느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복음화의 발걸음,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전교주일을 기쁘게 보내도록 합시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웃과 세상에 하느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복음화의 발걸음,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전교주일을 기쁘게 보내도록 합시다.”

봉사의 기쁨

성가정 본당에서는 10월 6일 주일 교중미사 후 가을을 맞아 교구청 제초 작업 봉사를 실시하였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20명의 신자들은 각자 집에서 제초와 잡초 제거 전문 도구를 챙겨서 잡초와 제초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내 집같은 마음으로 교구청 길을 청소하였다. 이날 교구청을 방문한 레지오 간부들과 신부님들의 격려가 더해져 한층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전했다.



행복한 사랑

윤선희 드보라 시인/ 가톨릭문인회

행복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사실 내가 행복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 행복은 모두가 불행한 속에서 나 혼자 얻을 수 없다. 나의 행복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행복과 연결된다.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면 그건 사랑일 것이다.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사람이 내내 그리워지면 그건 사랑이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아닌 사람에게도 어쩔지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된다. 사랑하는 그가 어느새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는 난로를 지피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따뜻하게 반기고 따뜻하게 말이라도 건네면서 마음에 온기를 전할 수 있겠구나하는 깨달음 같은 것이 밀려든다.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씬보르스카는 시 〈행복한 사랑〉에서 ‘행복한 사랑’이 필요한가를 물었다. ‘사랑에 눈 먼 두 사람’은 세상에 다시없는 운명을 만난 것처럼 행복해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서로를 위해 고안된 의무조항,/ 인류의 등 뒤에서 맺어진 밀약이다.”라면서 “과연 그들은 이 비좁은 제한 구역 내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어 할까?” 하며 자문한다. 시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랑이란, 행복한 사랑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사랑을 과시하듯 보여주는 사랑을 일컫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랑과 행복. 그녀는 단언한다.

행복한 사랑을 모르는 이들여,
행복한 사랑은 어디에도 없다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런 확신만 있으면 살아가는 일도, 죽는 일도
한결 건디기 쉬울 테니까.

처음 이 시를 읽고는 슬며시 웃었다. 그러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행복한 사랑’은 모든 사랑은 행복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와 너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오해든 서운함이든 남기게 되고, 생각지 못한 상처를 주기도 한다. 사랑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는 옛이야기는 그저 대충 서로를 묻고 잤다는, 서로를 봐주기로 했다는 말의 다른 말일 것이다. 오래 행복한 사랑은 없다. 잠깐씩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순간이 오지만 금세 진창에 넘어질 거라는 예감을 하게 되곤 한다. 그래서 시인의 단언은 용기를 준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 많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각자 느끼고 겪는 일들은 결국 비슷하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아니겠는가.

인간의 삶은 원래 불행한 건 아닐까? 우리는 언제나 고립되어 고독한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혼자의 길을 걸으며 행복을 향한 지난한 여정을 계속한다. 가장 빛났던 순간과 가장 우울했던 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들을 행불행으로 말할 수 없는 다소 어둡고 다소 밝은, 아니면 손바닥 뒤집듯 자주 바뀌는 기분들을 건디면서.

교구사목과 더불어 124위 시복을 위해 땀 흘린 제3대 교구장 박정일 미카엘 주교

황광지 가타리나/ 가톨릭문인회



박정일 미카엘
(1926.12.18.~2024.8.28.)

박정일 주교는 1926년 12월 18일 평안남도 평원에서 출생했다. 1944년 평양 숭인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 덕원신학교 고등과에 편입했다. 1950년 6월에는 성신대학에 편입했다가 1952년에는 로마 우르바노대학교에 입학했다. 1958년 11월 23일에 사제품을 받고, 1962년 6월 로마 성토마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하여 1962년 9월에 부산교구 초량성당 보좌를 시작으로 1963년 12월 27일부터 문산성당 주임으로 사목했다. 마산교구가 설정되고 1967년 1월 진주본당(현 옥봉동성당) 주임이 되었고, 1970년 9월부터 대건신학대학(광주가톨릭대학) 교수로 봉직했다. 1975년 2월 중동성당 주임으로 부임했으나, 9월에는 다시 대건신학대학 교수로 돌아갔다. 1977년 4월 제주교구장으로 임명되어 5월 주교로 서품되었으며 1982년 6월에는 전주교구장에 임명되어 6년여 사목하였다.

성장하는 마산교구

박정일 주교는 1988년 12월 1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제3대 마산교구장에 임명되어, 이듬해 2월 21일 성지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착좌식이 거행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주교단과 주한교황대사 이반 디아스 대주교가 참석했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2천3백여 명이 마음모아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했다. 새 교구장은 유럽에서 공부했으며, 제주교구와 전주교구를 두루 거쳤기에 우리 교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박정일 주교는 취임과 더불어 ‘친교와 봉사와 증거’라는 교회의 본질적 특성들이 마산교구의 모든 본당과 교구 공동체 안에 기필코 실현되기를 요망했다.

장병화 주교 재임 시기인 1987년에 이종창 신부를 남미의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파견하여 해외선교활동을 시작했는데, 박정일 주교는 해외선교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원회 창설을 계획했다. 1991년 2월 교구설정25주년 기념위원회 선교분과에서는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명을 굳건히 하기 위해 선교후원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10월 1일 회칙이 인준되어 에콰도르 선교후원회가 발족되었다. 우리 한국교회와 마산교구가 선교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과거를 되새기며, 이제 선교사를 파견하는 현재가 되었다. 에콰도르에 파견한 2명 신부와 2명 평신도사도직 자매가 마산교구의 이름으로 투신하게 되었다.

교구설정 25주년 신앙대회

박정일 주교는 교구설정 25년을 맞아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신자들의 내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교회상을 구현하고자 했다. 1990년 9월부터 교구설정 25주년 기념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리 위해 몸 바치자”(요한 17,17)라는 주제를 앞세워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10월부터 매월 한 달의 주제를 정하여 나아가기로 했다. 10월 가정기도의 달, 11월 성서읽기의 달, 12월 입양결연의 달, 1991년 1월 가소비·퇴폐 풍조 추방의 달, 2월 전교의 달, 3월 헌혈의 달, 4월 퇴폐 풍조 근절의 달, 5월 청소년 격려의 달, 6월 생명보존의 달, 7월 질서회복의 달, 8월 장병화 주교 선종으로 주제 없음, 9월 증거의 달, 10월 친교의 달.

세밀한 계획에 따라 본당과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별 지구별 강연, 교리반 개설, 크고 작은 부대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치러졌다. 교구민이 한 목소리로 25주년 기도를 함께 바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교황 강복장을 받는 기쁨 속에서 25주년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1년 10월 6일 마산종합운동장에서 교구설정 25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박정일 미카엘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쇄신되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데 첫째 목표를 두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축사, 주교회의 김남수 주교의 축사,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불라이트스 대주교의 축사가 있었고, 그라츠교구장 요한 베버 주교의 축전으로 풍성한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을 위한 땀

각 교구별로 시행되던 시복운동을 주교회의에서 통합추진하기로 하여, 2001년에 주교회의는 시복시성통합추진의 담당 주교에 마산교구장 박정일 미카엘 주교를 선임했다.

2002년 11월 박정일 주교는 마산교구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장으로서의 임무에 진력했다. 2003년 8월 1일 ‘조선시대의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소송청원서’를 교황청에 접수하였다. 그 후 국내에서 5년 동안 시복조사 법정인 열렸다. 박 주교는 책자와 기도문을 만들어 보급하며 신자들의 기도를 독려했다. 한국천주교회 차원의 시복조사가 마무리되어 이 문서들은 2009년 6월 3일에 시성성에 정식 접수되었다. 교황청 단계의 까다로운 시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박 주교는 여러 특강을 통해 시복을 염원하며 시성성 심의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리고 2014년 2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의 종 124위의 시복을 승인했다. 마침내 그해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광화문 광장에서 124위 시복식을 장엄하게 거행했다. 하느님의 종 124위가 복자품에 오르기까지 박정일 미카엘 주교의 헌신적인 땀이 흥건히 깃들었다.

에필로그

이 글을 쓰고 있던 중, 박정일 미카엘 주교는 2024년 8월 28일 선종하여 이화공원 성직자묘지에 안장되었다. 세 교구의 교구장을 역임하며 두루 교구사목을 이뤘던 박 주교는 “충성과 온유”를 앞세우며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온유한 미소를 남겼다.



▶참고: 〈천주교 마산교구 40년사〉 〈그라츠-섹카우교구와 동행 50년〉 〈양덕동성당 25년사〉 등

교구장 서리 동정

견진성사

일시: 10월 27일(주일)
장소: 함안성당

성경잔치 파견미사

일시: 10월 27일(주일)
장소: 마산교구청

교구/본당

사무장 연수

일시: 10월 22일(화)~24일(목)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성경교육봉사자 모임

일시: 10월 22일(화) 14:00, 19:30
장소: 마산교구청

제18기 성마리아 어머니학교

일시: 10월 26일(토)~27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제13회 성경잔치

일시: 10월 27일(주일)
장소: 마산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꾸르실료 정기 총회

일시: 10월 26일(토)
장소: 마산교구청

레지아 말씀 피정

일시: 10월 26일(토)~27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정의평화위원회 정기회의 및 10.29참사 2주기 추모미사

일시: 10월 28일(월) 19:00
장소: 마산가톨릭문화원

11월 연령연합회 연도교육

일시: 11월 3일(주일) 13:00~17:00
장소: 마산가톨릭문화원(구, 교구청)
대상: 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비 없음
준비물: 상장예식서
문의: 010-6677-6675(교구연령연합회장 정승한 예로니모)

생태영성 아카데미 교육

일시: 24년 11월 9일(토) 14:00~17:30
장소: 마산교구청 1층 대회의실
대상: 마산교구 신자 누구나
문의: 055-249-7114, 010-9321-9682
천주교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화) 16:00~1월 1일(수)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송구영신피정(송년미사, 해맞이, 신년 대축 일 미사)
신청: 221-1891,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농협 351-0006-1186-53(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기 타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제27회 학술발표회

주제: 심리학과 그리스도교 신앙
일시: 11월 7일(목) 10:00~17: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남평)
주최: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광주인권평화재단
문의: 061-339-2231(연구소) / 061-337-2181(대학본부)
참가하실 분들은 10월 31일(목)까지 유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혼인성소 발견하기

일시: 12월 15일(일) 10:30~17:00
장소: 부산가정성당(초량동)
대상: 혼인 희망하는 짝없는 가톨릭신자로 34~46세(1990~1978년생)미혼자;제2회 혼인성소 발견하기(2023년)참가자 배제

접수: 선착순 남녀 각 30명
문의: 부산교구 가정사목국 051-441-3501
성혈형성의집 별관 '침자리' 이용 안내
단체: 최대 13명 1일 숙박 20만원
개인피정: 최소 2인 이상 1일 숙박 3만
식사 개별 취사

문의: 010-8025-9759 그리스도의성혈홍승수녀회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11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이시들 목장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자연순례: 11월 7일~9일, 11월 11일~13일, 11월 21일~23일, 12월 1일~3일, 12월 6일~8일, 12월 14일~16일
추지도포함: 11월 18일~19일, 11월 25일~28일, 4월 5일~8일
연말연시(한라산눈꽃산행): 12월 29일~1월 1일
접수: 02-773-1455/ 064-796-4182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상시 모집
신설강의/수료이벤트/다양한 무료콘텐츠 제공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교구청 직원 모집

사무처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집: 정규직 1명
접수: 24년 10월 21일(월)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보유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특이사항: 컴퓨터 능통자(웹디자인, 웹서버 관리 가능자)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96)
문의: 사무처 055-249-7016
▶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0월 21일(월) 19:00	남성동성당	아브라함, 이사악 (성경 속 인물세미나)	김현우 바오로 신부 (인천 이주 사목담당)	김현우 바오로 신부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진주	10월 21일(월) 19:00	신앙상담(소강당)	어둠과 어둠 그리고 빛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 신부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 신부	010-3846-198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할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무상견적&진철상담
홍익철거
촌집·스레트지붕 전문철거
공장·주택·상가 등
이상현 토마스 마퀴나스
010-3913-6202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 무연고 처리
수목장 평장묘 터 알선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화성남 18길 2, 1층(약성동)
김종운(클레멘스)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www.cttour.org
1/3~1/14 튀르키예, 그리스 495만원
1/7~1/13 스페인 남부 375만원
1/13~1/24 피정 성모발현지 475만원
1/13~1/20 멕시코 과달루페 570만원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 20ml 15ml
힐데 스킨 100ml
힐데 비누 65g
힐데 샴푸 400ml 200ml
힐데 금강 크림 12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말라위 어린이 돕기 필기구 수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가 실시한 <말라위 어린이돕기 필기구 수집>에 40군데(본당·개인·단체포함)에서 필기구를 보내주셨고, 23개 본당(개인 포함)에서 후원금 8,205,000원을 보내주셨으며, 그 외 4,500,000원이 말라위 후원회로 모금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본당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평위는 필기구 8개 케리어와 후원금 8,205,000원을 전달하였으며, 남은 필기구는 필리핀과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해 보내질 예정입니다. 말라위후원회(회장: 전부학 피델리스)의 임원 3명과 현지 선교사 가족 2명이 9월 5일(목)~14일(토) 말라위 2개의 어린이집(마상가와, 까난두레)을 방문하여 학용품과 현지에서 구매한 학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말라위 후원회는 향후 현재 후원하고 있는 2개의 어린이집이 과밀(각 100명 이상)로 분반을 약속, 교육취약지역에 어린이집 1개 신설, 각 어린이집 놀이터 신설, 장애인학교(살레시오수도회 운영) 졸업생들에게 재봉틀과 이미용 기구, 자활을 위한 주택(상가 포함 4가구)을 마련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말라위 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본당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도움이 필요한 먼 나라 말라위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33차 청년 성령세미나

교구 청년성령쇄신봉사회(담당: 임성섭 유스티노 신부)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33차 청년 성령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령세미나는 11개 본당에서 21명의 청년이 참석하였다. 청년들은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구 청년성령쇄신

봉사회는 청년 성령세미나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에서 청년 성령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34차 청년 성령세미나는 2025년 5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http://myhs.or.kr> ■카카오채널: 마산교구청년성령쇄신봉사회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구청에서 다국어 전례 진행

지난 9월 29일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주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신다”)을 맞아 교구청에서 다국어 미사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함속에서 일치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창원, 마산, 진주, 거제, 통영, 함안, 칠원, 진영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450여명의 이주민 공동체가 참석하였다.

사무처장 주용민 리노 신부의 주례로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동티모르어 등 여러 언어로 진행되어 이주민들의 신앙과 문화를 존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한국아라병원이사장: 이명자)과 이주민의료비 감면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되어 이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전국교구 주교님들의 마음을 모은 '사마리아인 기금'을 통해 교구 내 이주배경대학생에게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창원이주민센터(센터장: 윤종두 요한 신부)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걸으시듯, 하느님의 교회도 이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많은 분들이 이 동행의 여정에 함께하는 뜻깊은 날이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조우현 십자가의 요한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침묵은 말에 선재합니다. 동시에 침묵은 창조의 완성을 이룹니다.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세상 창조 7일 째, 종말까지 이어질 창조 사업에 하나님께서 큰 쉼표를 하나 찍으시며 ‘세상이 완성되어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멈추셨습니다(창세 2,2 참조). 말씀의 멈춤은 온 세상 피조물의 안식과 복, 거룩함을 자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말로 이루어지는 세상 창조에 앞서 있고 그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온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의 침묵에 참여하게끔 초대받았습니다. 웅장한 자연 환경에 압도되어 본 사람은 ‘침묵이 이루어내는 하나님 찬미’를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압도하는 자연은 자기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킬 따름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아상(我相)을 넘어서는 존재인 자연을 마주합니다. 그로써 경이를 느끼고 한편으론 겸손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온 우주의 질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끊임없이 완성시켜 나가야 할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창세 2,19 참조) 그래서 자기 말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입을 닫아야 할 시점에 계속 입을 벌려 자기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로써 피조물 본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애써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른 이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창세기 3장의 뱀과 첫 인간들의 고통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식, 복, 거룩함이 뿌리내릴 수 없는 어둠의 골짜기의 현신(現身)이라 하겠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걷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시편 23,4 참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침묵하십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마태 27,46) 성부께서는 구원의 길을 가시는 성자의 고통 앞에 침묵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부의 침묵을 십자가 상에서 받아 안으십니다. 그 누구보다 힘 있는 말씀을 간직하신 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죄인들의 자리를 취하시며 침묵으로 지탱하십니다. 무고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수난하고 죽으셨다는 신앙고백에 맞갖게, 침묵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침묵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을 온전히 담아낸 십자가라는 자리는 온 인류의 재창조와 부활의 매개로 작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상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침묵에 기반을 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침묵에서 시작과 완성을 보듯이, 우리의 말 또한 하나님의 침묵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의 침묵으로 귀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최대한 말을 줄여야 한다’라는 식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앞서, 우리의 삶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회귀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을 지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침묵이 오롯이 하나님께 유보된 은총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침묵은 피조물 본연의 자리에 늘 부족하여 과도할 따름인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먼지와 재로 돌리는 회개의 몸짓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몸짓을 십자가 상에서 침묵하시는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든 이를 하나님께서 강복하시기를, 그로써 하나님 침묵의 안식, 복, 거룩함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